



LIVE

경찰 POLICE

VOL.

24

2026. Sep

이달의 키워드

한 걸음 더

- 형사 사법체계 대전환의 시대, 경찰의 나아갈 길
- 하늘에서 훑고 지상에서 묶는다, 드론순찰 75일
- 신고 처리 그 이후 — 포스트 112, 한 걸음 더 순찰
- 총구 안전확인 장비, '주의'에 절차를 더하다
- 배지 하나로 시작된 100년, 여경의 발자취

Photo by _김성현 경위, 충남청 홍보담당관실

- 충남당진서 송악지구대 -

좌측부터 순경 김동훈, 순경 남채연, 순경 권지영, 경감 이병락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NTENTS

01	이달의 칼럼 형사 사법체계 대전환의 시대, 경찰의 나아갈 길 · 부산경찰청장	04
02	경찰청 소식 총기 안전 확인 장비 시범 운영 · 차세대 112 시스템 ISP 종료 보고 · 공동체 치안 우수 사례	08
03	시도 경찰청 소식 경기 북부 드론 순찰 75일의 기록 · 부산 포스트 112 한 걸음 더 순찰 · 제주 외사 안전 구역	16
04	현장 LEVEL-UP 개정 형사소송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 개정 스토킹방지법 현장조사 방해죄 신설	23
05	현장 REPORT 장비 사용기 ③ 홀스터(권총집) 사용 후기 · 사건번호 너머의 사람을 보다	27
06	해외경찰 동향 일본의 조직범죄와 대책— 폭력단 대책법에서 익명·유동형 범죄 그룹까지 · 장응혁 교수	33

07	라이브 초대석	36
	내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직업 · 정일영 인하대 초빙교수	
08	순찰 NOTE	38
	시골 경찰 LIVE—T형 어른, F형 어른 · 답을 찾는 사람보다 질문을 가진 사람	
09	경찰을 뒤흔든 역사의 한 순간	42
	③ 배지 하나로 시작된 100년—앨리스 스테빈스 웰스와 대한민국 여경	
10	경찰관의 서재	45
	연 매장 · 엔드 오브 왓치 · 길 위의 인문학 ① 낙산 이화마을길	

현장경찰 LIVE — 범죄예방 MAGAZINE | 2026년 9월호(제24호)

발행일	2026.08.27	발행인	이승협
창간일	2024.09.19.	편집장	이연형
발행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에디터	이준형
홈페이지	www.police.go.kr	편집디자인 / 일러스트	이상미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제작	MA.U 스튜디오
		인쇄처	범신사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려면 사전에 [발행기관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시대, 경찰의 나아갈 길

김성희 치안정감,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오는 10월 2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중심축이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걱정, 업무량 급증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연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역량 강화가 후속 과제로 뒤따른다. 통제 문제는 현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니 충실한 대책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나머지 한 축인 역량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역량은 지식·기술·태도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이를 경찰에 적용하면, 지식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대한 이해이고, 기술은 데이터 분석력과 수사기법 등을 말하며, 태도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처지를 이해하려는 공감과 경청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보통 역량 강화라고 하면, 인력과 예산 확보, 수사지원 AI와 같은 과학기술 도입, 대내·외 협업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관점을 조금 넓히고 싶다.

역량의 범위를 '수사역량'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경찰이 키워야 할 것은 '수사역량'을 포함한 '치안역량'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현재의 변화는 수사 경찰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가 마주한 도전이자 기회다.



① 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어떤 경찰인가

당연히 수사를 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그 바람의 끝에는 더 근본적인 요구가 있다. 바로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지켜 주는 경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안전·자유·행복' 가운데 안전을 가장 앞에 두고 있는데, 나머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자유·권리 및 인권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 경찰이 수행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와 그 지향점이 다르다. 검찰의 수사가 공소제기를 위한 활동이었다면, 경찰의 수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다. 수사 자체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멀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투사(crime fighter)'가 아니라 치안 이슈의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가 되어야 한다. 경찰현장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직무 집행 하나하나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② 수사 패러다임을 넘어 치안 패러다임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는 분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다만, 수사에 한정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치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어야 한다.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¹⁾이라는 말이 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사고의 폭이 좁아져 그 틀 밖을 보지 못하게 되는 역설을 뜻한다.

수사에만 매몰되면 정작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와 같은 안전의 다른 축을 놓치기 쉽다.

매뉴얼에 갇힌 수직적 사고를 넘어 기능과 분야를 가로지르는 횡적 사고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다.

국민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경찰 활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렌즈로 보면 흩어져 있던 활동들이 하나로 꿰어진다. 예방순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을 둔 기초질서 단속과 환경개선 활동, 피해자 보호는 모두 국민의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포섭된다.



1)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이 제시한 개념

③ 치안현장은 복잡성과 불확실성 그 자체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사회환경 변화와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국가적 범죄 생태계가 진화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와 중독성 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풍수해, 1인 가구 증가, AI 기술도입에 이르기까지 치안의 변수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부지기수다. 이제 단편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

수사와 예방은 치안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다. 수사는 '사전예방책이 차단하지 못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수사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즉, 예방의 강화는 수사역량의 강화로 이어진다.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²⁾까지 고려한다면, 한 건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

현재의 치안 패러다임에서 필요한 핵심은 융합이다. 다행히 우리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영역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들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치안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화학적으로는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 분리하되 연대하고, 구분하되 통합해야 한다. 교육·보건·복지·재난 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안전 정보와 인프라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인 자치경찰제 역시 안전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내는 힘이 되어야 한다.

**분리하되 연대하고,
구분하되 통합해야 한다.**



²⁾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평균적으로 국가 GDP의 약 6.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16.2%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식 외 1,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의 동향 및 연구방향에 관한 고찰」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2020, p101, p105 참조

< 112반복신고 대응 대표사례 >

- ▶ 문신을 보이며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여 연간 13회 112신고된 남성을 공공장소 흥기 소지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 ▶ 관내 난폭운전 신고 분석하여 연간 132건의 곡예운전 신고가 발생한 장소를 단속과 시설개선 병행하여 위험요인 제거
- ▶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6세 정신질환자가 연간 58건의 112신고를 반복하여 지자체와 협업, 치료와 복지제도 연계

④ 반복신고 대응... 원인을 치유하는 ‘면(面)’의 치안으로

부산경찰은 112 반복신고³⁾ 데이터의 유형·빈도·패턴을 분석하여 일상 속 갈등과 위험의 원인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수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예방 중심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복되는 신고 속에는 대개 정신위기, 생활고, 주거 갈등, 교통문제처럼 경찰의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이 숨어 있다. 그 순간의 갈등만 봉합하는 ‘점(點)’의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맥락과 위험징후를 읽어내는 ‘선(線)’의 치안으로, 나아가 복지·의료·행정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면(面)’의 치안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원인에 대한 치밀한 탐색과 결부되어 시너지가 생긴다.

⑤ 대한민국 경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수직적 전문성에, 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전문성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해결 능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변화와 발전의 지렛대 위에 서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넓은 안목과 신념, 그리고 열정을 더할 때 명품 대한민국 치안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³⁾ 112반복신고 유형(9종): 이상동기 범죄, 정신 위기, 층간소음, 상습 주취·행패, 생계형 범죄, 교통사고·교통불편, 관계성 범죄, 상습·악성 반복신고, 비경찰 업무

총기 안전확인 장비 도입으로 현장 총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총기 안전관리, ‘주의’에서 ‘시스템’으로



• 장비 활용, 표준절차 시연



• 총구를 포집통 내부를 향하여 실탄 장전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에서 10개 지역 경찰관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확인 장비’ 시범 운영에 앞선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총기 안전확인 장비’는 총기 취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실탄이 발생되더라도 탄두 및 탄자를 장비 내부에서 안전하게 포집해 인명 피해와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적 안전 장비다. 총기 입·출고와 코킹(Cocking) 해제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총구를 장비 내부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 수칙 준수에 물리적인 안전 장치를 한 겹 더하는 역할을 한다.

‘총기 안전확인 장비’ 시범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은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의 취지와 구조·사용 방법을 공유하고, 전수 교육을 위한 총기 및 경찰 장구 입·출고 등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적용할 표준 운영 절차를 사전에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실제 총기를 활용해 총기 입·출고 등 주요 상황별 안전 확인 절차를 직접 실습하며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① 혹시 모를 한 발까지 안전하게

‘총기 안전확인 장비’는 지역관서 간이 무기고 앞에 설치해 총기와 전자총격기 등 입·출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는 고무판과 방탄천, 모래층 등 탄두의 에너지를 흡수·포집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했으며, 포집통 각도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별 여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현장 배치 전 전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주요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한 뒤 현장 시범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장비 도입에 따른 안전 우려도 최소화했다.

② ‘주의’에 더해 장비와 절차로 한 번 더 안전하게

지역 경찰관에게 총기는 국민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인 동시에 취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다. 지역 관서에서는 매일 총기 및 경찰 장구의 입·출고와 인수인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탄·장전·해제 및 안전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교육과 점검을 통해 총기 안전 수칙 및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사람의 주의와 숙련만으로 순간적인 착오나 부주의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예방적 장치로서 장비를 도입하고, 표준 운영 절차(SOP)를 더해 혹시 모를 위험까지 한 번 더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총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재 ‘총기 안전 확인 장비’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 등 6개 시·도 경찰청 소속 10개 지역 관서에 설치되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실제 총기·입출고 과정에서의 장비 활용도와 표준 운영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장비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 해외 운영 사례 >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권에서는 총기사용 전후에 약실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장비 규격과 표준 운영 절차를 보완·정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총기 안전은 경찰관 개인의 주의와 숙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주의와 경각심’에 ‘안전 장비’와 ‘표준 절차’를 더하는 것, 장비의 도입은 혹시 모를 실수까지 대비하는 예방 중심의 총기 안전 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총기 안전확인 장비 >

총기 안전확인 장비(가칭 : 총기안전기) : 총구를 장비(포집통) 안으로 향하게 하고, ① 권총 및 테이저 입·출고 시 △실탄 장전·해제 △총기 이상여부 및 상태 등을 확인 ② 실탄 발사 시 탄자가 고무판·모래에 박히며 정지, 모래층에서 탄환 수거



• 장비정면



• 포집통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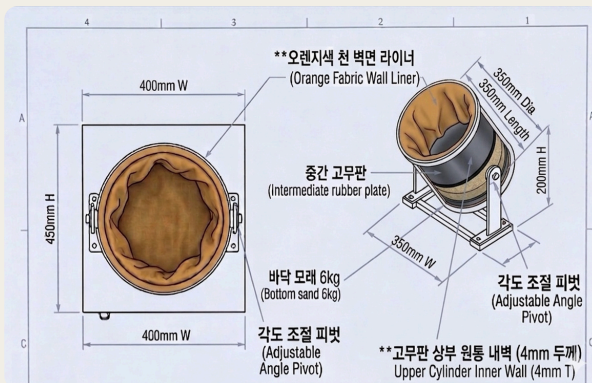


• 사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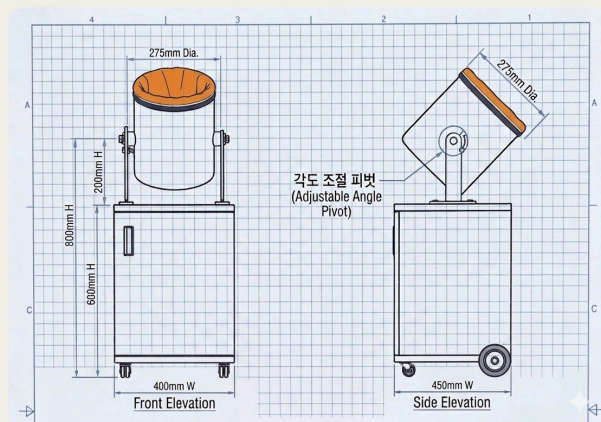


• 장비설치및활용

< 장비 도면 및 설치 >



• 입구 평면도, 장비 조감도



• 장비 정면도, 측면도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 ISP 종료보고회 개최

AI 기반 112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미래 청사진 마련



• ISP 종료보고회 전경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추진해 왔으며, 8월 7일 종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구축방향 등 112시스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번 ISP(정보화 전략 계획)는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지능형 사건분석 △정확한 상황판단 △정교한 현장 대응 등 112 신고처리 전 과정(접수·지령·출동·대응·종결)을 AI를 기반으로 개편하고자 작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연말 국회 증액을 통해 시스템 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① 시스템 구축 방향

이번 ISP 단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현장자문단 회의, 현장방문, T/F, 긴급기관(소방·해경청 등) 간담회,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총 381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7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등 112 시스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구축방향을 설계하였다. 향후에 구축될 차세대 112시스템은 AI가 경찰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 및 긴급도 등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분석 및 추천해 112상황실과 현장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향후 계획

이번 종료보고회는 차세대 112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 및 구축에 앞서 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청은 이번 ISP에서 마련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반영된 예산에 맞춰 단계별('27~'29년, 3개년 사업)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구분	주요내용
AI 기반 신고처리 및 상황관리	▶ △신고내용 실시간 분석·요약 △사건분류 자동화 △긴급도(Code) 판단 △통화 중 이상징후 탐지 △최적의 출동자원·경로 추천 등 의사결정 지원 ▶ CCTV·순찰차캠·바디캠·드론캠 등 다양한 영상정보(AI 영상분석)를 실시간 연계, 상황실과 현장(112폰 등)이 함께 활용하는 통합 상황관리체계 마련 ▶ 유관기관(소방·해경·산림청 등)과 실시간 공동대응을 위한 연계 체계 마련
AI 기반 현장 지원	▶ 주요 시스템(SAN 등)과 연계, '사람'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과거 신고 및 사건처리 이력 등 사건 간 연관 분석을 통해 현장대응 판단 지원 ▶ 사건별 매뉴얼·체크리스트·지침·우수사례 등 주요 착안사항을 자동 현출하여 표준화된 신고처리 및 초동조치 체계 마련 ▶ 지휘관(경찰서장 등) 전용 시스템 구축, 현장 지휘역량 강화 지원 ▶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112신고사건처리표·상황보고 등 각종 보고서 자동 생성 △포상금·과태료 등 행정업무 자동화 체계 구축



• 수행기관 발표

2026년 상반기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 선정·포상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안전,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 소개

최근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치안 수요 또한 세분화되면서, 경찰의 노력만으로 모든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어린이 등 범죄 취약 계층 보호, 통학로 안전 확보, 지역별 치안 위험 요인 발굴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치안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경찰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각 기관·단체가 경찰과 힘을 모을 때 치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정기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있다.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활동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경찰관과 협력 단체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①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6년 상반기 공동체 치안 성과 및 우수사례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공동체 치안 활동이 추진되었다.

원룸촌 등 범죄 취약 지역 대상으로 CPTED 사업이 총 182건, 238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고,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관련 총 7,306개소에 비상벨, 경광등 등 범죄 예방 물품이 지원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CPTED 관련 조례에 범죄 예방 지원과 경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 30건, 49건 명시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 경찰과 광역 예방 순찰대의 지역사회 순찰 과정에서 범죄 취약점, 사고 위험 징후, 불안 요인 요소 등 총 10,851건을 수집하고, 이 중 가치가 높은 6,819건은 범죄 예방 활동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경찰청-대형 경비업체 및 시도청-중견 경비업체 간 업무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지 총 1,268개소에 출동 차량 1,108대를 배치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였고, 경찰-자율방범대 간 총 3,585건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자율방범대에서 범죄 취약지 대상으로 연인원 263,381명이 총 71,330회 순찰 활동을 수행하였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현장성과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지역치안정보 수집·활용, △통학로 안전 강화,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단체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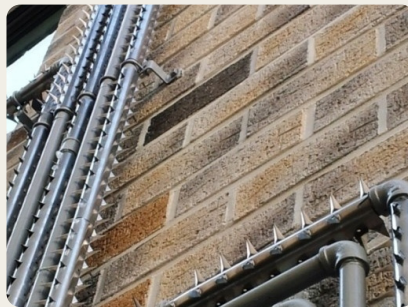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분야에서는 ① 울산청 남부서에서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 최대 전통 시장인 신정시장에 대해 지방정부, 시장 상인회와 협업하여 5천만 원을 확보하여 CCTV 및 반사경 등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② 경북청 포항북부서에서 지방정부, 포스코엠텍, 생활안전협의회, 시니어클럽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60개소 및 1인 가구 20개소 대상으로 비상벨, 이동 감지 센서, 침입절도 방지 배관 덮개 등 3,370만 원 규모의 범죄 예방 용품을 지원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지역치안정보 수집·활용 분야에서는 ③ 서울청 송파서에서 불상의 남성이 야산에 오두막을 설치하고 담배를 피우며 생활하여 산불 위험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노숙인을 지속 방문, 설득하여 노숙인을 지원하는



①울산 남부서에서 신정시장에 설치한 '순찰차 거점구역' 표시



②포항 북부서에서 범죄취약지에 설치한 침입절도 방지 배관덮개



③서울 송파서에서 야산 노숙인을 입소시키며 폐기 조치한 움막

서울시 '다시서기 센터'에 입소 조치하고 노숙인이 사용한 움막과 생활 쓰레기는 구청과 협업하여 폐기 처리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통학로 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④ 광주청에서 지역 4개 경비업체와 업무 협약('26.6.8.)을 통해 출동 차량 배치 장소를 기존에 협의했던 6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출동 차량에 '공동체 치안 협업 순찰 중' 문구의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범죄 예방 활동에 가시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베스트 자율방범대 분야에서는, 서울 노원 상계8동 자율방범대가 관내 범죄 취약 공원 18개소와 변종 업소 거리를 집중 순찰하는 한편,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여학생, 차도에 뛰어드는 정신 질환 학생 등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②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동체 치안을 일상으로

공동체 치안의 핵심은 거창한 사업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찾고,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노력이 쌓일수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 경찰관서와 공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추진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체 치안 활동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안전을 위한 작은 관심과 참여가 공동체 치안의 시작이다. 2026년 하반기에도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 선정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더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국 경찰관과 협력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④광주청 통학로 안전 경비업체 업무협약



⑤서울 노원 상계8동 자율방범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작은 관심과 참여가
공동체 치안의 시작이다.

경찰청 기자단 기획보도

하늘에서 훑고 지상에서 묶는다... 경기북부 '드론순찰' 75일의 기록

-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 산악·도심 치안 사각지대 해소 성과
- 실종자 수색·범인 검거·교통 단속 등 공중·지상 통합 대응으로 치안 안전망 강화

조기동 경위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2026년 3월 27일 오후 5시 37분, 포천시 영북면의 한 야산. "남편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 38명, 소방 40명, 군 100명 등 대규모 수색 인력이 투입됐다. 날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지상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산악 사각지대를 가로지른 것은 경찰 드론이었다. 드론 카메라에 목을 맨 변사자의 형체가 포착되자, 드론팀은 즉시 위치를 전파하고 촬영 영상으로 지상 경찰관과 구급대, 군 수사관의 진입로를 안내했다. 현장을 지휘한 광역예방순찰1대 드론팀장은 "드론이 없었다면 수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청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 출범



포천 야산 변사자 수색 현장



파주 공·폐가 순찰 중 벌금 수배자 검거

① 산악·농촌·도심 복합 지형... 지상 순찰 한계 넘는 '공중 보조'

경기북부 지역은 포천·가평의 산악지형부터 파주·고양의 도심, 접경지역에 이르기까지 지형이 매우 복잡적이다. 기존의 순찰차나 고정식 CCTV만으로는 넓은 산악이나 복잡한 골목 등 치안 사각지대를 모두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은 2026년 2월 23일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을 공식 출범했다. 광역예방순찰 1대와 2대 소속으로 각 6명씩 총 12명의

전담 인력이 편성됐으며, 전문 운용 요원이 주간 근무를 기본으로 휴일까지 전담 운용 중이다. 드론은 경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의 눈과 발이 닿지 않는 곳을 넓게 비추며 수색과 추적을 돕는 '입체적 치안 보조 장비' 역할을 맡고 있다.

② 갯벌 변사체 위치 특정부터 줌 카메라 활용한 범인 검거까지

드론팀은 출범 이후 두 달 반(75일) 동안 수색·구조, 범인 검거, 행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성과를 냈다. 4월 16일 행주대교 투신 실종자 수색 당시, 한강 갯벌

지역에서 고배울 줌 카메라로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던 변사체 위치를 정확히 특정했다. 접근이 어려운 갯벌 특성을 고려해 소방 지휘부와 실시간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소방 헬기의 효율적인 인양 경로 판단을 지원했다.

범죄자 검거에서도 현장 지원 효과가 드러났다. 4월 3일 파주 재개발 지역 공·폐가 순찰 중 주차 차량 조회를 통해 수배 차량을 발견해 벌금 수배자를 검거했다. 4월 8일 포천에서는 공중 순찰 중 비정상적인 번호판 차량을 식별해 수배자 포함 2명을 검거했으며, 4월 22일 남양주에서는 주민이 제보한 '위험 운전 차량'을 공중 추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찾아냈다. 4월 27일 포천에서는 불법 현수막 공중 점검 중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자를 식별해 검문 후 수배자 2명을 추가 검거했다.

③ 13만 관람객 몰린 BTS 공연장 안전관리 및 교통·산불 예방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서도 안전관리 도구로 활약했다.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월드 투어 행사에는 약 136,000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드론팀은 고배울 줌 카메라로 압표 매매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가짜 티켓 판매 사기범(외국인 포함)을 특정해 검거했다. 또한 공연장 상공 150m 이상 고도에서 무단 비행하는 불법 드론을 20여 분간 추적해 조종사를 검거함으로써

공중안전을 확보했다.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병목구간을 분석해 인원 밀집 사고를 예방했으며, 인근 건물 연기 사고에 대해서도 10초 만에 수증기임을 드론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였다.

교통 및 재난 예방 업무도 병행됐다. 신학기인 3월 초 남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드론 방송 기능(음성 스피커)을 활용해 PM 무면허 운전 등 교통위반자와 고액상습체납차량을 단속했다. 4월 30일 파주 운정동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공중 채증하고 지상 단속요원과 협업해 단속했다. 5월 9일 가평 경춘국도·자라섬 일대에서는 주말 상습교통체증 지역 차량 사이에서 게릴라식 물건을 판매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을 접수, 드론 공중 식별·채증으로 총 98건을 단속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3월 14일 가평에서는 농경지 소각행위를 발견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 여부까지 확인했다.

④ 광학줌·열화상·AI 접목...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

드론팀이 운용하는 기체에는 광학 줌 카메라, 열화상(적외선) 카메라, AI 객체 인식 기능, 음성 스피커 등이 탑재되어 있다. 열화상 드론은 야간이나 수풀이 우거진 지형에서 체온 차이로 사람을 식별해 야간 수색에 활용되며, 음성 스피커는 상공에서 직접 안내 메시지를 송출해 교통 법규 준수

구분	기존 지상 순찰 방식	드론 연계 공중-지상 통합
산악·갯벌 수색	진입 난해, 수색 시간 소요	공중 탐지로 위치 즉시 특정
교통·행사 단속	지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	고배울 줌으로 원거리 채증
현장 상황 공유	무전 기반 상황 전달	실시간 영상 공유 및 진입 안내

⑤ 관계기관 협업 체계 확대 및 향후 추진 방향

유도나 이상동기 범죄 예방 순찰에 쓰인다.

치안 현장에 드론이 투입되면서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두고 운용 중이다. 드론은 불특정 다수를 무분별하게 촬영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전 계획된 순찰 노선이나 112 신고 접수 현장, 범죄·교통 위반 행위 채증 등 명확한 목적에 한해 공중-지상 통합 체계로 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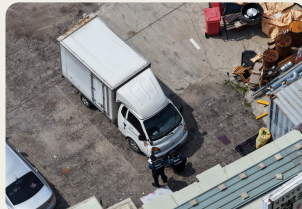
특히 AI 기반 범죄예측 시스템(Pre-Cas)을 활용해 전자발찌·정신질환 관리 대상자 등 재범 위험 고위험군의 활동 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찰 노선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적 영역 촬영을 방지한다. AI 객체 인식 기능 역시 영상 내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용도로 한정해 사용된다.

드론팀의 역할은 단순 순찰을 넘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4월 29일에는 경기도청 대테러지원팀,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강북아리수센터 등과 함께 ‘드론테러 공동대응 협의체’에 참석해 실전 운용 사례와 AI 대상물 식별 순찰차, 공중-지상 통합 운용 체계를 공유했다. 향후 정기적 협의체 개최와 합동 FTX(Field Training Exercise)도 예정되어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예방순찰과 연계한 지능형 치안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 치안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는 “드론은 광범위하고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안의 눈이 되고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BTS 월드투어 안전관리



포천 비정상 번호판 식별



남양주 위험운전 추적 검문



열화상 카메라 병목 분석

< 숫자로 보는 드론순찰 (75일간의 기록) >

- ▶ 운용 주체 :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총 12명, 1대·2대 각 6명) — 공식 출범 2026년 2월 23일
- ▶ 수배자 검거 : 총 5명 이상 (파주 공·폐가 1명, 포천 비정상 번호판 차량 수배자 포함 2명, 남양주 위험운전 수배자 1명, 포천 불법 현수막 설치 수배자 2명 등)
- ▶ 실종·변사자 발견 : 2건 (3월 27일 포천 야산 변사자 발견, 4월 16일 행주대교 한강 갯벌 변사체 위치 특정)
- ▶ 대형 행사 안전관리 : BTS 월드투어(관람객 약 136,000명 대상) 압표 매매 2건 적발, 가짜 티켓 사기범 검거, 불법 비행 드론 조종사 검거 1건, 연기 신고 10초 만에 수증기 확인
- ▶ 교통 단속 및 안전 조치 : 가평 경춘국도·자라섬 게릴라식 물건 판매 단속 등 총 98건, 어린이보호구역 PM 무면허 및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지원
- ▶ 재난 예방 : 봄철 산불 조심기간 농경지 소각행위 발견 및 잔불 확인 1건

부산경찰청

신고 처리 그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현장

- 신고 현장 종결 후 연계 예방순찰로 스토킹 피해자 현행범체포, 음주운전자 검거 등 현장 성과 잇따라
- “단순 처리를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부산청 핵심 가치 ‘One More Step’ 반영한 치안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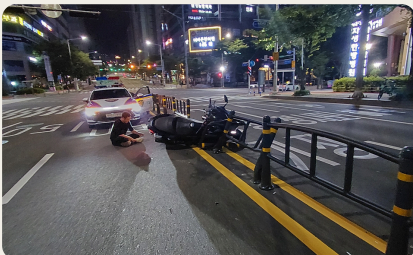
부산경찰청은 지난 6. 19.(금)부터 112 신고 처리 후에도 사건 현장과 치안 취약 지역을 지속 순찰하며 재신고 및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특수시책 「포스트 112, 한 걸음 더 순찰」 시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책은 단순한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종결에 그치지 않고, 신고 처리 후 △1단계(대상지 선정) → △2단계(거점·예방 순찰) → △3단계(112시스템 이력 관리)의 체계적 고리를 통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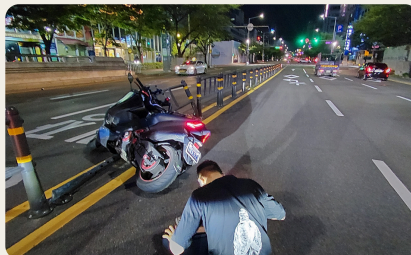
이러한 ‘한 걸음 더 순찰’의 효과는 치안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① 스토킹 2차 피해 사전 차단 (연제서 연일지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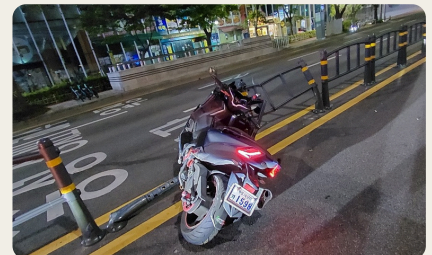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후,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직장 주변 집중 예방순찰을 전개했다. 그 결과, 피해자 직장 인근을 서성이던 피의자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보복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



중앙분리대 충돌·전도된 오토바이 사고 현장



운전자 구호 및 음주 측정



사고 차량 현장 확인

②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무면허 검거 (해운대서 좌동지구대)

여성 주취자 신고 처리를 완료한 직후, 관내 도로변 탄력 순찰을 연계 실시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도된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발견했다. 운전자 구호 조치와 함께 정황을 파악하여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면허 취소 수준)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③ 노인의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예방 홍보 (사하서 신평파출소)

타 신고 처리 후 포스트 112 순찰 중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청취한 뒤, 자체 예방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어 관내 편의점 21개소, 경로당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을 직접 방문해 노년층 대상 위법성 교육 및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 체감안전도를 끌어올렸다.

부산경찰청은 포스트 112 순찰 독려 등 현장 경찰관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에 대한 수시 표창 및 즉각 포상(즉상)을 검토하고, 부산청 자체 특진 과제인 '지역 치안 에이스' 및 '지역경찰 원팀' 평가항목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 처리는 경찰 활동의 끝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 치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현장 순찰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방문 교육



편의점 협조



편의점 전단지 부착



제주서부경찰서 · 외사안전구역 범죄예방활동

국경을 허문 연대, 공존의 일번지를 만들어 가다

— 제주서부경찰서 외사안전구역 맞춤형 범죄예방 및 공동체 치안활동

① 다채로운 문화 이면의 치안 사각지대,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민국 속 작은 지구가 된 거리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이 모여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은 늘 활기가 넘친다. 그러나 이 다채로운 문화의 이면에는 언어 장벽, 생소한 한국 법률에 대한 무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치안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뒤따른다.

엔데믹 이후 제주는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함과 동시에 금은방 절도뿐만 아니라 유괴함이 도난당하기도 하고 카지노를 둘러싼 중국인 간 강도살인, 감금폭행, 불법 환전 등 범죄 형태가 지능화·계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K-치안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 외국인 밀집지역을 단순히 '우범지대'로 낙인찍고 단속 위주로 대처하던 시대는 끝났다. 진정한 외사 치안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 환경을 사전 차단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연대의 울타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 누웨마루 거리와 노형의 랜드마크인 드림타워를 아우르는 거대한 '외사안전구역'을 관할하며 선제적·공동체 중심의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② 민관경 협력의 나침반,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예방순찰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촘촘한 공동체 치안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지역사회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외사치안협력위원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시선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외사 치안 환경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며, 민·경 합동 치안활동의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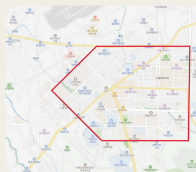
③ CPTED와 협업이 만든 결실 : 드림타워 주변 맞춤형 환경 개선

노형오거리 드림타워 주변은 제주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외국인 이동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다. 역동적인 공간인 만큼 무단횡단, 노상방뇨,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다발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광역순찰대의 단속에 앞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사전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위원인



외국인 예방활동



외사안전구역



협력위 정기회의



맞춤형 안내판



외국인 자율방범대

노형동장의 제안으로 '도시 미관과 메시지 전달을 아우르는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이 추진되었다.

노형주민센터의 예산 협조(540만원)를 바탕으로 드림타워 주변 가시성이 높은 4개 장소에 외국인 맞춤형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 유관기관과 외사 치안협력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치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었다.

④ 단속의 대상에서 '치안의 주체'로 : 외국인 자율방범대

외사안전구역의 골목길은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띤다.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식당가와 골목 사이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나란히 발을 맞추며 순찰하는 이색적인 대원들이 있다.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다.

과거 치안이나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외국인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의 주체'로 거듭났다. 경찰관에게 경계심을 보이던 외국인들도 자국 언어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방범대원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반갑게 응대한다.

국경을 허문 뜨거운 연대는 외사안전구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밝히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⑤ '외사안전구역 해체'를 꿈꾸며 : 안전과 공존의 미래

외사안전구역의 최종 목표는 역설적이게도 '외사안전구역 해체'다. 더 이상 별도의 특별 관리가 필요 없을 만큼 평온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세심한 정책 설계와 국적을 초월해 어깨를 나란히 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든든한 걸음은 외사안전구역의 밤거리를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치안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문화의 격차를 촘촘한 연대로 메워나가는 제주서부경찰서의 선제적 예방활동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치안이 나아가야 할 '안전'과 '공존'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 외사안전구역 >

외국인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를 위해 2013년 8월 지정되어, 외사과에서 운영하다 조직 개편에 따라 2024년 범죄예방 기능으로 이관. 전국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포함되어 집중 관리 중임 △활동 : CPTED사업, 광역순찰대·자율방범대 순찰,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예방교육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

△위원장 : 경찰서장 또는 외사 기능 과장 △위원 : 내부(관련 기능 과장), 외부(지자체,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내·외국인 주민(외국인 협력단체장, 주민 대표 등) △운영 방식 : 분기별 개최 △업무 : CPTED·합동순찰 등 유관기관 협력방안,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범죄예방교육, 내·외국인 합동 행사 지원, 외국인 관련 동향 파악 등

< 외국인 자율방범대 >

△관련 법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4.26. 제정) △구성 : 7개국 2개 단체 53명(중국 26, 필리핀 17, 캄보디아 5, 네팔 2 등) △주요 활동 : 여성안심귀갓길 합동순찰, 하굣길 가시적 경찰활동, 기초질서 계도 순찰

지역경찰 현장교육자료

개정 형사소송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 ① 경찰관이면 알아야 할 개정 핵심 내용
- ② 지역경찰관이 현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 (10월호 게재 예정)

아래 내용은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관이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이번 개정안의 ‘큰 흐름’입니다. 조문 번호보다는 ‘무엇이, 왜 바뀌는지’에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왜 바뀌나 — 수사과 기소를 분리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이 큰 틀에 맞춰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수사 · 기소 권한의 재편

종전

2026. 10. 2. 이후

검찰

직접 수사 + 기소 결정

경찰 · 중대범죄수사청 · 공수처
수사검찰(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② 검사, 이제 직접 수사를 못 한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권한)가 삭제되면서, 검사는 어떤 사건이든 직접 소환조사를 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종전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도 모두 없어집니다. 관련 사건은 경찰, 그리고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습니다.
- 송치받은 사건에서 보완조사가 더 필요해도,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장 포인트 | 검사가 아예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아래 3.항처럼 ‘의견요청’이나 ‘면담’ 형태로 관여하는 통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③ 그 대신 생긴 것 — 검사 의견요청 제도·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

- [경찰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은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5조 제3항). 애매한 법리 쟁점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검사가 당사자에게] 검사는 공소제기·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참고인 등을 직접 면담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다만 이 면담은 정식 피의자신문이 아니고, 면담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④ 보완수사·재수사, ‘기한’이 법률로 못박혔다

종전에는 하위규정(수사준칙)에만 있던 처리기한이 법률로 격상되면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지역경찰관이 직접 처리 주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소속 관서·형사팀의 사건 처리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구분	근거조문	요구기한	처리(수사) 기한	추가로 알아둘 점
보완수사 요구	제197조의2	제한없음	접수일로부터 1개월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씩 연장 가능·연장 횟수 제한 없음)	종전엔 하위규정(수사준칙)에만 있던 기한이 법률로 격상됨
재수사 요구	제245조의8	불송치기록 송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일로부터 3개월(연장 규정 없음)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추가 재수사’를 1회 더 요구 가능
시정조치 요구	제197조의3	위반 인지 즉시	지체 없이 이행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대상

현장 포인트 | 기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넘기면 직무배제·징계요구, 또는 상급 수사관서·다른 수사기관 지정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도 사건 적체로 기존 기한(수사준칙상 3개월)조차 못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축된 기한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지는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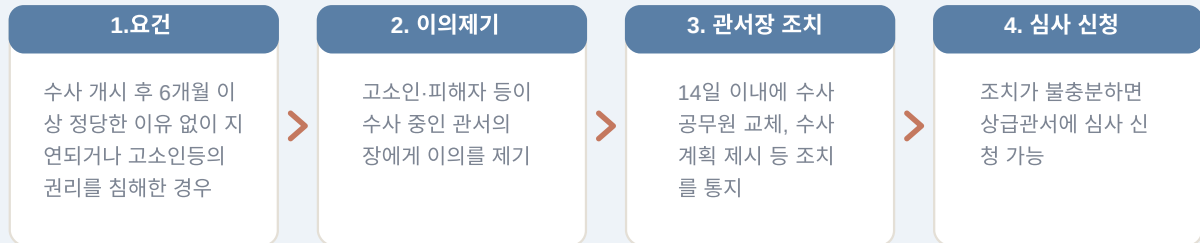
-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 : 지금까지는 고소인·피해자만 이의신청(옛 ‘검찰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제한적으로 포함됩니다(제245조의7 제2항).
- 3개월 기한 신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엔 기한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 기간 내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록 열람·등사권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목적 외로 유출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함께 생겼습니다.

현장 포인트 | 고소·고발 접수 시 ‘불송치되면 3개월 안에만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미리 안내해 드리면 현장에서 오는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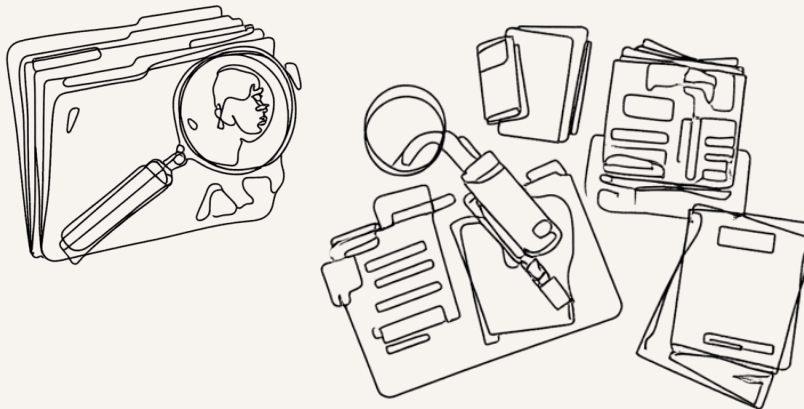
⑥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 수사가 늦어질 때 (제245조의11)

5.항의 '불송치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걸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너무 늦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이의제기 절차 (제245조의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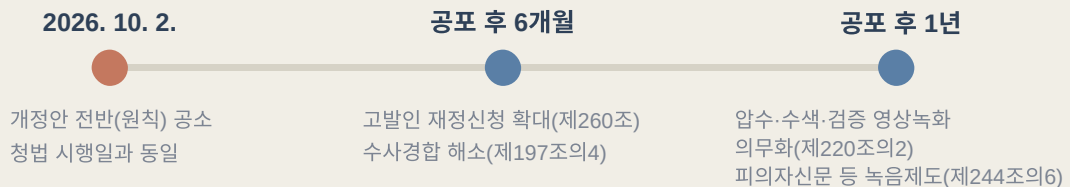


현장 포인트 담당 수사관 교체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이므로, 접수·상담 단계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⑦ 시행일 정리

< 시행일 정리 >



※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확대 등은 지역경찰 실무와 거리가 있어 이번 자료에서는 생략했습니다. 다음 호(10월호)에서는 오늘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 — 신고 접수 시 안내 방법, 고소·고발 관련 민원 응대 등 — 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역경찰관 현장 교육자료

개정 「스토킹방지법」 — 현장조사 거부 등 방해죄 신설

— 현장 출입·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현장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1천만원 이하)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했습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재수준강화

과태료 1천만원이하



형사처벌 징역1년↓·벌금1천만원↓

유형	내용	적용법조
① 물리적 차단	문을 잠그거나 몸으로 막는 등 물리력으로 출입·조사를 막는 행위	스토킹 방지법 (행위 자체만으로 적용— 폭행·협박 불요)
② 폭행·협박 동반	출입·조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스토킹 방지법+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동시 적용

※ 유사법인 아동학대처벌법상 업무수행방해죄(5년↓ 징역)는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스톱킹방지법은 방해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어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현장 대응 절차 5단계

- ① 신분고지** 소속·계급·성명 고지, 공무원증 제시, 조사 목적·이유 명확히 설명 (제14조제3항)
- ② 경고후진입** 방해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현장 진입
- ③ 증거확보** 바디캠·휴대폰 녹음·녹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방해 상황을 기록
- ④ 가·피해자분리**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진술 확보, 순찰차 이동 시에도 동석 금지 (제14조제4항) 방해
- ⑤ 사건접수** 행위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건 접수 처리

근거법령	요건
스토킹방지법 제14조제2항	스토킹행위·범죄 의심,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강제개방 등 포함)
112신고처리법 제8조제3항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 우려, 피해방지·피해자구조 필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	현행범(스토킹범죄·잠정조치 불이행죄)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유의사항 — 판례로 보는 적법성

무죄 대법 2020도8129

피해자가 이미 대피해 안전 확인의 긴급성이 없는데도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진입 — 출입 전 상황 판단과 고지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

유죄 대법 2024도594

신고 정황이 진실하고 출입·조사 협조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완강히 거부해 지원 요청 후 진입 — 공무집행방해 인정. 요청·경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둘 것

※ 본 자료는 경찰청 교육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요약본이며, 실제 적용 시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경찰 장비사용기 ③

홀스터(권총집) 사용 후기

정필성 경위 용인동부경찰서 고매파출소 / 무기통합교관

15년 전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물으셨다. "권총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당시 나는 나지막이 '홀스터...'라고 했지만 교수님께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안전할 때는 무기고에 있을 때이고, 두 번째가 홀스터라고 하시며, 권총이 무기고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홀스터가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① 홀스터의 기능과 목적

홀스터의 목적은 단순히 권총을 휴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몸에 부착하여 휴대하는 장비이므로, 뛰거나 움직일 때 총이 확실히 고정되어야 하며, 권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수는 쉽게 접근하여 꺼낼 수 있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가령 수갑을 채우기 위해 두 손이 필요할 경우 등) 빠르고 안전하게 수납도 가능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구성이나 장시간 착용 시에도 착용감도 나쁘지 않아야 하며, 사격 경기용이나 컨실드캐리(은닉휴대)가

아닌 외부로 노출되는 외근 근무용 홀스터의 경우 쉽게 피탈되지 않도록 최소 1개 이상의 안전장치도 부착되어야 한다.

② 홀스터의 종류와 재질

권총을 휴대하는 위치에 따라 보통 솔더 홀스터, 벨트 홀스터, 레그 홀스터, 앵클 홀스터 등으로 나뉜다. (물론 요즘은 원하는 위치에 빠르고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어댑터들이 개발되었다—ex: 사파리랜드 QLS, 블랙호크 QD, G-Code RTI, 블레이드텍 Tek-Mount 등) 재질은 가죽, 나일론, 카이텍스(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머(고분자 플라스틱) 등 다양하지만 현재 전세계 군·경에서는 압도적인 내구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대부분 카이텍스 또는 폴리머 재질로 된 홀스터를 사용 중이다.



휴대위치에 따른 분류—솔더·벨트·레그·앵클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죽, 나일론, 폴리머, 카이텍스>

③ holster 안전(고정력) 등급

국제화된 규격은 없으나, 최초의 카이덱스 holster를 개발한 전직 FBI 요원이자 사격 선수였던 빌 로저스(Bill Rogers)가 1970년 초반 자신의 회사인 Rogers Holster Company를 설립하면서 holster의 고정력 등급을 설계하였고, 이후 로저스 holster를 인수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군경에서 사용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holster 제조업체인 사파리랜드를 통해 업계 표준이 되었다.

사파리랜드에서는 Level 1, 2, 3, 4의 총 4가지 단계의 등급을 나누고, 몇 개의 안전장치가 있느냐에 따라 레벨이 나뉘는 게 아닌 몇 개의 동작으로 안전장치를 해제하느냐에 따라서, 동작 개수가 1개면 레벨1, 2개면 레벨2, 3개면 레벨3, 3개 이상일 경우 레벨4로 분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파리랜드 모델 6004와 같이 SLS 방식의 경우 안전 장치는 1개뿐이나 해제를 하기 위해 엄지를 누르고 앞으로 밀어야 하는 두 가지의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2로 분류된다.

④ 지급용 holster의 현실

현재 일선에 지급되는 holster는 내부 흔들림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인서트나 삽입된 나일론제 holster로 테이저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근무 교대 시

권총과 테이저를 holster 교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벨크로가 달린 플랩(덮개)과 버클의 사용으로 피탈을 방지하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으나, 버클을 해제하고 플랩을 열고 총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한손으로 꺼내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는 holster의 기능 중 권총의 보호라는 기능에는 충실하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빠른 출납의 기능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holster에 큰 관심이 없는 편이며, 총을 빠르게 꺼내는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흥기를 들고 있는 범인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공격할 때, holster에서 총을 빨리 뽑을수록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에,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holster의 기능 중 하나이며, 많은 직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기능성 holster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것이 현실이다.

⑤ 나의 holster 연대기

형사와 강력팀 막내 시절 당직 때마다 상황실에서 테이저를 분출하여 종일 차고 있어야 했는데, 이때 지급용 솔더 holster가 너무 불편해서, 사비를 들여 블랙호크사의 X26 용 holster를 구매하여 허리에 차고 다닌 적이 있다. (덕분에 당시 형사와 형들이 로봇경찰, 로봇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Safariland holster들 우측부터 Level 1, 2, 3

이후 약 7년 만에 지역경찰로 나오면서 보급용 holster가 신속한 대응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인치 M60 모델에 맞는 기성품을 찾다가 조건에 맞는 holster를 구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전직이신 선배님이 만드신 holster도 사용해 보고, 그것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는 카이덱스 holster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다.

⑥ 윈터치 holster

올해 1월 무기 통합교관 양성과정 교육에 교관단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청에서 시범운용 중인 윈터치 holster를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자동권총용 잠금장치를 리볼버용에 적용하면서 생긴 부작용인 안전해제 레버가 너무 뒤쪽에 있어 조작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레버 연장 어댑터 등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⑦ 지역경찰 역량강화를 위한 holster 개선 제안

그동안 수십여 개의 holster들을 구입하여 사용해본 경험에 비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holster의 요건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 피탈방지를 위한 최소 1개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어야 할 것.
- 한손으로도 쉽게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권총을 뽑을 수 있을 것.
- 권총 사용 후 한손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과 동시에 잠금장치가 작동할 것.
- 벨트와 조끼에 모두 착용이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 검증된 메이커의 어댑터와 호환될 것.
-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과 한여름과 겨울의 실외 온도에 변형이 없어야 할 것.
- holster가 조끼나 벨트에 결속된 채 일반적인 성인남성의 힘으로 당겼을 때 holster의 결속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현재 우리 지역경찰을 위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holster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면, 기능이나 내구성 등은 카이덱스나 폴리머 재질의 holster가 훨씬 좋고 대량생산도 가능하지만, 카이덱스의 경우 생산공정이 많고, 폴리머 등은 초기 금형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두 재질의 holster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범운영 하였던 윈터치 holster를 베이스로, 잠금 해제 레버의 길이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글을 마친다.



사파리랜드 GLS 시스템과 G-code RTI를 이용하여 제작한 M60 전용 holster



윈터치 holster — 이름대로 한번의 동작으로 총을 꺼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특별강연 참석 후기”

사건번호 너머의 사람을 보다

백연주 순경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 경찰청LIVE 기자단

성폭력 사건을 마주할 때 경찰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까. 범죄사실과 증거, 법률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사건번호 너머에 있는 '사람'이다.

지난 7월 29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특별 초청 강연은 이러한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변호사와 검사가 바라본 경찰 성폭력 대응 현장은?'을 주제로 박수진 변호사와 서지현 전 검사가 강연자로 나섰고, 여성안전·청소년보호·범죄피해자 보호·여성청소년수사·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함께했다.

①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절차의 주체로

박수진 변호사가 던진 첫 번째 화두는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절차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토킹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일 사건 하나만으로 전체 위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의 신고와 하나의 사건번호 뒤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 이어진 관계와 반복된 폭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도주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계속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범죄와는 다른 위험의 양상이 존재하는 셈이다.

피해자가 절차 안에 있으면 위험은 기록되고, 진술은 증거로 남고, 지원은 의무가 된다.

피해자가 절차의 바깥에 놓일수록 위험 판단과 지원 여부는 개별 수사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권리와 의사가 수사절차 안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된다면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수사의 안정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② 피해자의 반응에는 정답이 없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성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울거나 불안해하거나 가해자를 즉시 피해야 할까. 강연자들의 답은 분명했다. 피해자의 반응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 직후 가해자와 웃으며 대화할 수도 있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할 수도 있다. 특히 고용관계나 친족관계처럼 생계·주거·경제적 의존 등이 얹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부의를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왜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나요?", "왜 당시 웃고 있었나요?"와 같은 질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보다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

강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함께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같은 질문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 그랬습니까?'라는 추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사건번호는 여러 개지만, 관계는 하나일 수 있다

최근 현장의 새로운 고민도 소개됐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스토킹·명예훼손·무고 등으로 역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고, 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지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건만 따로 바라볼 경우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실질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사건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각 사건을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여러 사건이 하나의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각 각의 사건 너머에 있는 맥락 역시 살펴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④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은 증거다”

서지현 전 검사의 강연은 보다 실무적인 메시지로 이어졌다. 성폭력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을 하나의 영화처럼 다시 재현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설명도 인상 깊었다. 현장의 물건, CCTV, 휴대전화와 메시지, 피해자의 의복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는 의미였다.

CCTV와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피해자 역시 사건 직후 충격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를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사의 협력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이어졌다.



박수진 변호사 — “피해자가 절차 안에 있을 때 수사는 강해진다”



서지현 전 검사 —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은 증거다”

피해자는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범죄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다. 결국 좋은 수사는 정확한 증거 확보와 함께 피해자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⑤ 초동조치부터 수사는 이미 시작된다

질의응답 중 한 지역경찰관의 발언 역시 오래 기억에 남았다. 전문수사부서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보호를 업무와 직접 연결해 고민하지만, 최초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에게는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성폭력 사건의 첫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지역경찰일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성폭력 대응은 사건이 전문수사부서에 인계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되고 있다.

'어디까지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초동조치에서 벗어나, '이 현장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초동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 강연이 경찰 조직 전체에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처럼 느껴졌다.

⑥ 결국, 좋은 수사는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이날 강연을 들으며 '좋은 수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했다.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적용법조와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끼워 맞추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피해자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이 나온 관계와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필요한 질문을 하되 왜 그 질문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 사라질 수 있는 증거가 없는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어쩌면 '피해자 중심 수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러한 작은 판단들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사건번호 너머의 사람을 바라보고, 현장의 작은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번 강연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였다.



강연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특별 초청 강연

해외경찰 동향

일본의 조직범죄와 대책

— 폭력단 대책법에서 익명·유동형 범죄그룹 대응까지

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의 치안상황과 치안체계는 매우 유사하기에 발생하는 범죄는 물론 범죄대책도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양국은 매우 안정된 치안수준을 자랑하며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마약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일본도 과거에 3차례에 걸쳐 마약이 심각하게 문제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다만 조직범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야쿠자는 세계 3대 범죄조직으로 평가받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초반까지 조직들이 총기까지 사용하며 대립하였다.

이하에서는 일본 경찰이 범죄조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최근에는 익명·유동형 범죄그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조직도 출현하였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과거의 조직범죄와 대응

1. 폭력단과 그 특징

일본의 법률은 야쿠자를 '폭력단'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가 많이 줄어 2021년에는 2만 4,100명에 불과하지만 1963년에는 18만 명을 넘으며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다만 인원 자체는 줄었지만 남은 인원이 특정한 조직에 몰리며 광역화되었는데, 특히 야마구치구미는 2014년 전체 폭력단 구성원의 약 50%를 차지하였고 2015년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분열된 이후에도 전체 폭력단 구성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단은 사회의 변화와 당국의 단속에 대응하면서 조직의 형태와 관여 범죄를 변화시켰는데 크게 3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우선 제1기(1945~1960년)에는 새로운 집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세력들과 무력에 의한 대립항쟁을 반복했다. 이후 단속이 강화되자 제2기(1960~1985년)에는 합법적인 활동을 가장한 경제활동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을 대는 형태로 활동하였다.



제3기(1985년 이후)에는 폭력단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획득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폭력단은 ① 민사개입폭력에 의한 자금획득 활동의 강화, ② 위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금획득 활동의 증가, ③ 자금획득 활동의 불투명화, ④ 활동의 국제화와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 기업파산채무정리, 부동산임대차, 교통사고 합의 등의 각종 민사분쟁이나 거래에 개입하면서 부당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갈·협박·폭행·상해 등의 범죄가 아닌 위력을 행사하였다. 최근에는 위력조차 필요 없는 분야인 특수사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2. 폭력단대책법과 새로운 행정권한의 부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1년 제정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은 경찰에게 다양한 행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폭력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 법은 민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경찰이 ① 폭력단원이 하는 폭력적 요구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게 하였고, ② 폭력단의 대립항쟁 등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범죄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인 민사개입폭력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금품 등의 요구행위, 기부금 요구행위, 하도급 등의 요구행위, 이른바 자릿세 요구행위, 보호비 등의 요구행위, 고리채권 추심행위를 폭력단이 폭력단의 위력을 보이며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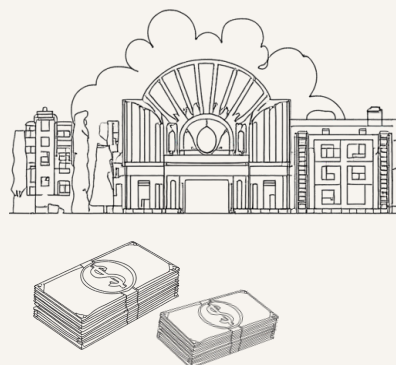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公安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이 있어 전자는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후자는 요구행위가 이미 저질러진 경우에 활용된다. 이러한 입법은 2차대전 이후 경찰의 권한을 축소해왔던 일본에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 획기적인 입법으로 평가받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제정된 스토킨규제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III. 새로운 범죄조직의 등장과 종합적 대응

1. 익명·유동형 범죄그룹의 등장

원래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범죄그룹을 결성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이른바 '익명·유동형 범죄그룹'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여기에 응한 청소년들에게 지시역이 익명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때로는 이 개인정보를 구실로 범죄를 지시하고 실행시킨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범죄조직은 사기는 물론 조직적 절도 및 강도 등 다양한 범죄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특히 2023년 1월 발생한 강도치사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범죄대책각료회의는 2024년 12월 '이른바 불법 아르바이트에 의한 강도사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가능한 가장신분수사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조속히 실시할 것"이 포함되었다.



2. 가장신분수사의 도입

일본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가장신분수사는 수사관이 범죄 실행자의 모집에 응해 범인과 접촉하는데 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용모,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문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위장수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가장신분수사는 우리나라의 위장수사와 달리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 및 국회 등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가장신분수사를 임의수사로 보기 때문인데 내부적으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이러한 수사기법이 수사관에게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도입을 미루어왔는데 익명·유동형 범죄그룹은 종래의 조직범죄대책으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3. 새로운 대응체계 신설 및 다양한 대응의 도입

이외에도 익명·유동형 범죄그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 인터넷상에서 범죄실행자를 모집하는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인터넷 핫라인센터가 다른 범죄 관련 정보와 함께 모집정보도 삭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범죄조직의 피의자와 범행거점이 주로 수도권 등의 대도시에 소재하면서 범죄는 전국 각지에서 저지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각 도 도부현 별로 '특수수사기연합수사반'을 두어 전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할구역 내에서 필요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가 소재한 7개 도부현경찰에는 파견자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주모자 및 지시역 등 핵심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장관관방의 심의관 및 참사관이 대책의 명령이 되어 대응을 주도하도록 하였고 경찰청 장관관방기획과에 '익명·유동형 범죄그룹 정보분석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대처는 조직범죄를 관할하는 형사국이 아니라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장관관방에 설치한 것이 특색인데 범죄조직이 형사국이 대응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국의 담당범죄 등 폭넓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시청에 전국의 수사관을 모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 여기서는 경찰청에서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핵심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적발된 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IV. 나오며

일본의 조직범죄 대응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직범죄가 더 이상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합동수사본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조직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권한을 도입하고 경찰청과 자치경찰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필자소개 장응혁

경찰대학을 나와 일본 도쿄대학에서 형사법 석사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연구관, 경찰대학 교수요원,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일본 도쿄대학 비상근강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이다. 저서로는 일본의 형사정책 I·II (공역, 박영사, 2020),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공저, 박영사, 2018) 등이 있다.

라이브초대석|현장경찰LIVE

내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직업

정일영 · 인하대학교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

프랑스 파리8대학 언어학 박사 / 유튜브 '악성 내성인 정일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일영이고 파리 8대학에서 언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3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 최근 악성 내성인 정일영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MBC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63세 동안 죽은 듯 살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터져 60대 중에서 한국 미디어 섭외 1순위라고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별뿔뿔처럼 한순간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는 동안 사실 프랑스 경찰과 접촉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오히려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지는 하지만). 다만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찰들이 굉장히 친절하며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어학 연수를 할 때였는데 백만원을 주고 산 중고차를 타고 파리에 와서 대학원에 등록을 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그만 차선을 잘못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 경찰이 나에게 차를 옆으로 대라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그 교통 경찰이 좌회전하는 차들을 세우더니 나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재빨리 경찰이 안내해준 차선으로 들어서 무사히 좌회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는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여성 경찰들이 있는데 주차 위반 지역에 차를 세워놓았다고 해서 바로 딱지를 떼지 않고 차 보닛에 손을 대봅니다. 그래서 뜨거우면 금방 도착한 것이라 혹시 위급한 일 때문에 차를 불법 주차시켜놓았을 수도 있으므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직까지 차가 불법 주차 자리에 있으면 그제야 딱지를 떼는 것을 봤습니다(물론 모든 경찰이 다 그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 친구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라서 거짓말 또는 과장이 매우 심할 수도 있지만 녀석 말에 따르면 프랑스 특히 젊은 사람들도 경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 친구의 친구가 경찰이면 그 친구와도 절연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리에서 보면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 바로 경찰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파리 경찰은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는데 파리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찰차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있었지만 속도가 부족했고, 자동차는 좁은 골목이나 인파 속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경찰은 당시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던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순찰 장비로 도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허리에는 무전기와 수갑, 기본 장비를 차고 도심을 순찰했습니다. 롤러스 케이트 경찰은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게 보행자 구역을 이동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몇 초 만에 관광객들 사이를 통과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샹드마르스 공원, 퐁브리 정원, 센강 강변처럼 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파리 경찰은 시민과 관광객이 처음 만나는 ‘프랑스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특히 파리 경찰들은 의외로 관광객들에게는 호감을 사는데요 길을 잃거나 특정 장소를 찾는 관광객들을 직접 안내해주기도 하고 분실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어느 경찰은 인터뷰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파리 경찰은 시민과 관광객이 처음 만나는 ‘프랑스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경찰들이 정말 살벌했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미디어에서 잔인한 사건들에 대한 보도를 들을 때면 현대 사회가 점점 위험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반해 경찰들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경찰도 은행원이나 회사원처럼 어찌 보면 그냥 직업일 뿐인데 왜 유독 경찰에게 가혹한 잣대를 대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집에서는 귀한 집 자식이거나 아내와 자식을 둔 가장일진대 하나의 잘못이 발생하면 마치 모든 경찰들이 다 그런 것인 양 미디어에서 난도질을 하기 일쑤입니다.

평소 저는 개인주의가 찌는 프랑스에서 10년 가까이 살다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받은 만큼 일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쥐꼬리만큼 월급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용의 머리만큼 강요 당하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봉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해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 제자이면서 내가 중매서서 결혼도 했고 떡두꺼비같은 아들도 둘이나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경찰을 하고 있는 97학번 ○○○ 녀석아, 연락해라.



필자소개

정일영

인하대학교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

프랑스 파리8대학 언어학 박사다. 침착맨 채널에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과 독보적인 인생 썰로 수많은 시청자를 사로잡은 화제의 인물이자, 실패와 불안을 넘어 꿈을 현실로 바꾼 삶으로, ‘꿈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다.

시골경찰 LIVE

T형 어른, F형 어른

김승혜 경감, 제주서부경찰서 하귀파출소 팀장

MBTI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혈액형 점이나 별자리 운세처럼 사람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성격과 성향, 그리고 서로의 상성을 설명하는 분류법인데요. 요즘은 소개팅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MBTI를 먼저 확인한다든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특정 유형을 꼭 집어서 구인 공고를 내기도 한다니, 가히 MBTI 만능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P니 J니, T니 F니 하는 것도 다 MBTI 분류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감정이 생각보다 앞서는 F형의 인간입니다. 그래서인지 몇 번인가 채용시험 감독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 역시 수험생인 듯 초조해지고 진이 빠지더군요. 마치고 나면 여러모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요.

한 번은 체력 검정 날 시험장 정문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부터 체력 검정이 시작되고, 수험생들은 9시 50분까지 정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임무를 준 사람은 “9시 51분 0초가 되면 문을 잠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안 그러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라고 당부했구요. 저는 사뭇 결연한 마음으로 휴대전화 알람을 맞추고, 함께 있던 의경에게 알람이 울리면 바로 정문을 잠그라고 일러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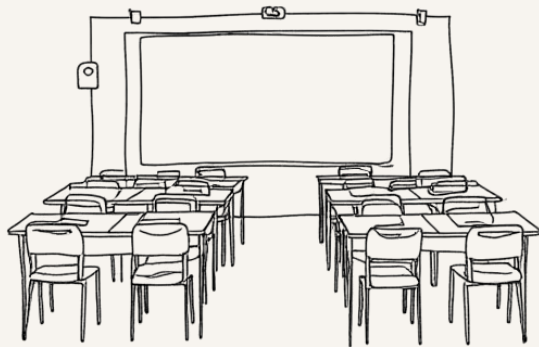
9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한 무리의 수험생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허겁지겁 택시에서 내려 혁혁대며 체육관으로 달려간 사람을 마지막으로 정문 앞은 한산해졌습니다.

— 9시 50분... 57초, 58초, 59초. 51분. 땡.

의경이 드르릉드르릉하며 철문을 밀어 닫고 얼마 안 지나, 저 아래쪽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문이 잠긴 뒤였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성이 시험 받는 순간이군.’하고 생각했지요.

시간이 지나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요. 조금밖에 안 늦었으니 들어가게 해 달라는 말에, 저는 “안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부터가 시험 시작이예요. 돌아가세요.”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험생이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정문을 그저 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그라고 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경에게 문을 잘 지키라고 하고서 뒤돌아 시험장인 체육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귓가에 따라붙었습니다.

언젠가의 시험에는 면접관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관은 2인 1조였는데, 저의 짝은 어느 기관의 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군가를 잠깐 보고 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있으니, 점수에 큰 차이를 두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락 점수를 주자고 강하게 주장한 수험생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경찰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시험에 떨어지고 일주일 정도 집을 나가서 모든 연락을 끊었거든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가 지내던 숙소를 찾아내서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출동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학원에서 준비했을 천편일률적인 답안들에 비하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개성 있는 답변이었지요. 그때 제 짝은 저에게 “저 사람은 일하다 힘들면 언제든 결근하고 연락두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믿고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 해요.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봐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분과 저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고 경력이 쌓인다는 건, 더 이상 절실히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거나 누군가로부터 뒤흔음을 시험받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여물지 않은 마음을 여기저기 부대끼며 사느라 고된 것이고요. 이 글을 읽으실 때는 신입 공채 1차 시험을 마치고 경채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을 무렵일 텐데요. 혹시 시험 감독관으로 가시게 된다면, 절실히 경찰관이 되고 싶은 젊은이들의 분투를 여여빠 여기시되 단단한 마음으로 공정함을 지켜주세요.

보자 보자 하니, 제가 생각이 너무 많죠? F형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시험 감독관을 하기에 소심한 유형이라서 그렇고요.

필자소개

김승혜(김누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했다. 2019년에 「혼자를 지키는 삶」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생방송 시골경찰〉이라는 블로그(blog.naver.com/gomyamy)에 바닷가 마을 파출소의 일상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계속 글로 쓰고 있다. 최종 학력은 등산학교 졸업, 해녀학교 재학 중.

답을 찾는 사람보다 질문을 가진 사람

문승일 경감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순찰팀장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세상이 참 빨라졌다.
예전에는 무엇을 아느냐가 힘이었다.
많이 외우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남보다 먼저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앞서갔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웬만한 질문에는 몇 초 만에 답이 나온다.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자료도 정리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나는 오히려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
도구가 좋아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진 사람도 목적지가 없다면 계속 길 위를 맴돈다.
반대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 자신이 가려는 곳에 닿는다.

AI도 비슷하다.
질문이 알으면 대답도 알아지고,
생각이 깊으면 같은 AI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공부는
정답을 많이 머릿속에 넣는 공부만은 아닐 것이다.
하나를 보고 다른 하나를 떠올리는 힘,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 사이에서 연결점을 발견하는 힘,
그리고 나온 답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시 묻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키우는 오래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책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각 속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나오는 일이다.

때로는 한 페이지를 읽고 오래 멈추는 것이
백 페이지를 빠르게 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 “왜 그럴까?”
- “정말 그런가?”
-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독서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다.
경험도 한 권의 책이다.
사람을 만나고,
실패하고,
기다리고,
무언가를 오래 해본 시간에는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문장이 숨어 있다.

젊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수많은 장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들을 낡은 기억으로 두지 않는 것이다.

책에서 얻은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AI가 찾아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서로 연결해보는 것이다.
그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재료가 된다.

나는 AI 시대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기계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는 시대가 왔다면
사람은 이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들이 지나친 곳에서 멈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물음표 하나를 붙이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묻는 사람일 것이다.

AI는 수많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결국 내가 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금 읽고,
조금 배우고,
조금 의심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이어본다.

**어쩌면 공부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경찰을 뒤흔든 역사의 한 순간 ③

배지 하나로 시작된 100년

— 앨리스 스테빈스 웰스와 대한민국 여경,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편집부

1909년 로스앤젤레스, 신학교를 졸업한 서른여섯 살의 사회복지사가 시청 앞에서 시민 100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내용은 단 한 줄, "여성도 경찰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총도 제복도 없이 배지 하나만 받아 든 채 미국 최초의 '체포권을 가진 여성경찰관'이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36년 뒤, 지구 반대편 해방 직후의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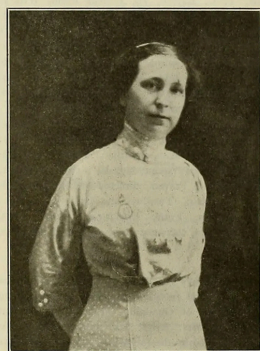
① 목사가 경찰이 되다

- 앨리스 스테빈스 웰스

앨리스 스테빈스 웰스는 캔자스에서 태어나 오벌린 대학과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신학과 범죄학을 공부한 목사이자 사회복지사였다. 그는 여성 인력이 경찰 업무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1909년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시의회에 여성 경찰관 임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1910년 9월 12일 그는 정식으로 임용되었다.

당시 여성이 감옥에서 여성 수용자를 돌보는 '교도관(matron)' 역할을 맡는 사례는 1890년대부터 있었지만, 웰스처럼 남성 동료와 동일한 체포권을 가진 정식 경찰관으로 임용된 경우는 이전에 없었다. 다만 역사학자들은 1905년 오리건주 포틀랜드 경찰이 롤라 볼드윈이라는 여성에게 유사한



앨리스 스테빈스 웰스
(1873~1957)



ALICE WELLS
FIRST POLICEWOMAN

'여자경찰관 배지 1호'
-웰스를 위해 따로 제작·지급되었다

총도 제복도 없이 배지 한 개—
그것이 웰스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는 이후 30년을 현직에서,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여성이 경찰 업무
에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
하며 보냈다.

권한을 위임했던 사례를 들어, 웰스를 '미국 최초의 여성' 대신 '체포권을 가진 최초의 정식 여성경찰관 중 한 명'으로 조심스럽게 기록하기도 한다.

임용 첫날 그가 지급받은 것은 전화박스 열쇠와 규정집, 응급처치 안내서, 그리고 배지 한 개가 전부였다. 총도 곤봉도 없었고 제복조차 스스로 지어 입어야 했다. 남편의 배지를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여성 경찰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었던 탓에, 경찰서는 훗날 그를 위해 '여자경찰관 배지 1호'를 따로 제작해 지급했다.

웰스가 맡은 업무는 스케이트장, 무도장, 극장 등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을 순찰하며 비행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찾는 일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여성청소년 보호 업무의 원형이라 할 만하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15년 국제여경협회를 창립했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 100여 개 도시를 돌며 여성경찰관 채용을 호소하는 순회강연을 이어갔다. 1934년 경사로 진급했고, 1940년 30년의 재직을 마치고 퇴직했다.

② 같은 시대, 다른 대륙 - 대한민국 여경의 탄생

한국의 여경은 광복 직후인 1946년 미군정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해 5월 여성 피의자 신체수색, 여성 범죄자 감시, 불량 청소년 선도, 미아 및 요보호자 구호 등에 여성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여자경찰관 간부급과 1기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이어 7월 1일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서가

'여자경찰과'가 정식으로 신설되었고, 2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간부 15~16명과 1기생 63~64명이 7월 16일 정식으로 배출되었다. 초대 여자경찰국장은 고봉경 총경이 맡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초창기 여경 간부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황현숙은 한국 여경 최초의 경무관에 올랐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은 1952년 총경으로 승진하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냈다. 초대 서울(수도)여자경찰서장은 부산과 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던 양한나 경감이었다. 유관순 열사의 올케였던 노마리아는 1949년 여경 최초로 경감에 올라 대구여자경찰서장을 맡았고, 함흥 3·1운동을 주도했던 전창신은 1950년 인천여자경찰서장이 되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여성들이 이번에는 치안을 지키는 자리에 섰던 셈이다.

1947년 서울여자경찰서를 시작으로 인천·대구·부산에도 잇달아 여자경찰서가 설치되어, 지리산 공비 토벌 등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조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1950년 여자경찰과가 계(係) 단위로 축소되었고, 1957년 7월에는 여자경찰서마저 폐지되며 여경 조직은 일반 경찰 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다.



제1관구경찰청 여자경찰 — 1946년 창설 초기의 대한민국 여경

③ 배지 뒤에서 조직 속으로

- 통합과 확장의 시간

사라진 이후에도 여경의 자리는 조직 안에 남았다. 다만 1970년대까지는 민원실과 행정 등 내근 부서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흐름이 바뀐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지구대·파출소는 물론 형사·교통·경비·정보 등 사실상 전 부서로 배치가 확대되며 여경은 '보호 업무 담당자'에서 '경찰 조직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2004년 김인옥 총경이 공채(공개채용) 기준 여경 최초로 경무관에 올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이후 이금형 등이 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을 차례로 돌파하며 여경이 오를 수 있는 계급의 상한선은 계속 위로 이동해 왔다.

④ 그리고 지금

- 분리에서 통합으로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하고,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의결하면서 순경 공채의 틀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을 따로 두고 여성 정원을 전체의 20% 안팎으로 제한해 왔으나, 2023년부터 이 성별 정원 구분을 없애는 통합모집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2026년부터는 체력검정까지 완전히 통합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체력검정 방식의 변화가 크다. 팔굽혀펴기·악력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되 남녀가 서로 다른 자세·기준을 적용받던 방식에서, 장애물 달리기·허들 넘기·밀고 당기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남녀 동일하게 4.2kg 조끼를 착용한 채 제한시간 안에 통과해야 하는 순환식 체력검정으로 전환되었다.

⑤ 100년의 거리

앨리스 스테빈스 웰스가 무기도 제복도 없이 배지 한 개로 시작했던 자리에서, 오늘의 경찰 조직은 채용과 체력기준까지 성별을 나누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의 여경 역시 '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전담자'라는 처음의 틀에서 출발해, 형사·교통·경비·지휘부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넓혀 왔다.

두 역사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국 같은 질문이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르는 기준이 성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역량과 자격이어야 하는가. 100여 년 전 웰스가 배지 하나로 그 질문을 던졌다면, 지금 우리는 순환식 체력검정이라는 훨씬 구체적인 형태로 같은 질문에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100년의 발자취

1910
미국 LA

앨리스 스테빈스 웰스,
체포권을 가진 정식
여성경찰관 임용

1946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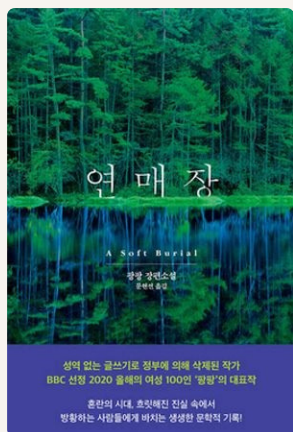
공안국
'여자경찰과' 신설 ·
1기생 배출

1957
대한민국

여자경찰서 폐지 —
일반 경찰 체계로 흡
수

2026
대한민국

순경 공채 체력검
정까지 남녀 완전
통합 기준 적용



BOOK

연매장

잊어야만 했던 기억들에 대하여

저자	팡팡(方方)
옮김	문현선
분류	중국 장편소설
선정	BBC 2020 올해의 여성 100인

정유선 순경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 현장경찰 LIVE 기자단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용기일까.

우리는 흔히 기억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한다. 잊지 않아야 역사가 되고, 기억해야 진실이 남는다고 믿는다. 시간이 흘러도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연매장』은 기억하는 일만큼, 잊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정말 모든 기억은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연매장'은 관 없이 시신을 묻는 장례를 뜻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연매장은 단순한 장례 방식이 아니다. 1950년대 중국 토지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기억을 잃은 채 강가에서 발견된 한 여인은 우자밍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녀에게 '딩쯔타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 아들 칭린을 낳는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덩쯔타오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간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칭린은 어머니를 새집으로 모셔 오고, 그곳에서 덩쯔타오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토지개혁이라는 시대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연매장해야 했던 기억이었다. 그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새로운 삶은 시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망각은 배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된다.

소설은 끝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마지막에서 칭린은 부모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지 않는다. 기억을 되찾는 것보다, 왜 그들이 그 기억을 묻고 살아야 했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제야 '연매장'이라는 제목이 왜 붙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묻힌 것은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었고, 견디기 위해 삼켜야 했던 눈물이었으며, 잊은 것이 아니라, 잊어야만 했던 기억이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역시 말하지 못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기억은, 시간 속에 조용히
연매장해두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CINEMA

엔드 오브 왓치

순찰차 안에서 본 우리들의 하루

감독 데이비드 에이어
출연 제이크 질렌할 · 마이클 페나
제작 2012년 · 미국
장르 범죄 · 드라마

고지곤 경정 경찰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 정책계장



「엔드 오브 왓치」 (2012)

경찰이 나오는 영화는 많습니다. 그런데 순찰하는 경찰이 주인공인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형사가 범인을 쫓는 이야기이지, 그 범인을 만나기 전까지 경찰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엔드 오브 왓치(2012년작)」는 미국 LA에서 2인 1조로 순찰하는 경찰 둘을 따라갑니다. 총격전보다 순찰차 안에서의 대화가 많고, 추격전보다 신고 출동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심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알겠더군요. 그 평범한 하루 자체가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전부였습니다.

카메라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입니다. 주인공이 수업 과제 삼아 자신의 근무를 촬영한다는 설정이라 휴대용 카메라와 제복에 단 소형 카메라, 순찰차 캠으로 화면이 이어집니다. 배경음악도 별로 없고, 멋있게 보이려는 연출도 없습니다. 무전 소리, 순찰차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동료끼리 주고받는 시답잖은 농담이 화면을 채웁니다. 보다 보면 영화를 본다고기보다 「다큐멘터리 3일」 제작진이 순찰차에 하루 종일 동승해 촬영한 영상을 보는 기분입니다.

“First customer of the day.”

“I hope they enjoy our police service.”

자막으로는 “개시 손님이네”, “최고의 서비스로 모셔주자구” 정도로 번역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곱씹어 보면 참 경찰다운 농담입니다.

손님은 예약하고 오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한 사람도 있고, 흥기를 든 사람도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오늘의 '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친절함 응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두가 무사히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농담하던 표정이 현장 앞에서 순식간에 바뀌는 장면. 지역경찰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대목일 것입니다.

“개시 손님이네”

“순찰의 기본은 편한 신발이죠”

“벌써 두 시간이야.”

“순찰의 기본은 편한 신발이지.”

허탈해서 웃었는데 이상하게 이 대사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순찰은 뛰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많고, 걷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형사가 올 때까지, 감식이 끝날 때까지, 다음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보통 영화라면 이런 장면은 편집되겠지만, 이 영화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시간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경찰 같습니다.

조수석

영화의 절반은 두 사람이 떠드는 장면입니다. 근무 중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수다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둘만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눈 사이라야 위급한 순간 "왼쪽", "뒤"라는 한 마디에도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순찰차에서 가장 비싼 장비는 방검복도, 무전기도 아닐지 모릅니다. 바로 ‘조수석’입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그날 근무를 바꿉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잠시 주변을 살피고, 눈짓을 주고받은 뒤 움직입니다. 아주 짧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에서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반대로 그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영화는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순찰차 캠과 바디캠으로 이어지는 화면 — 연출을 견여낸 시선

초동 조치는 문을 연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기 전 몇 초 동안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몇 초를 몸에 익히기 위해 지금도 지역경찰들이 반복해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영화를 보며 ‘기본’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훈장보다 귀한 것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하고 표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 가족들은 축하보다 먼저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영웅담을 시상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대가는 현장에 있던 경찰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전이 조용하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가족도 함께 치릅니다.

엔드 오브 왓치

End of Watch는 근무 종료를 알리는 무전 용어이면서, 순직한 경찰관을 기릴 때도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는 동료들의 뒷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반복되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즈음이면 오늘 함께 순찰차를 탔던 동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해 첫 무전이 울릴 때, "개시 손님 이네." 영화 속 두 경찰이 웃으며 던졌던 그 한마디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첫 손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의 하루가, 별일 없이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2인 1조 순찰, 그 평범한 하루가 이 영화의 전부다

길 위의 인문학

건축가 임진우의
'검고보은 길'

연재를 시작하며

서울은 조선 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600년의 역사와 사연이 겹겹이 쌓인 도시입니다. 이 깊은 결 속에 스며든 서울의 옛길과 장소들을 찾아 한가로이 거니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외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재미와 의미가 교차하는 특별한 장소들을 조심스레 펼쳐 보려 합니다. 여유가 닿을 때, 그곳을 천천히 음미하며 거닐어 보시길 권합니다. 바쁜 경찰업무와 일상에 쫓겨 무심히 지나쳤던 도시의 숨은 보석과 소중한 가치들을 문득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의 숨은 아름다움은 이미 우리 곁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연재 순서

- 01 낙산이화마을길
- 02 한양도성길
- 03 서촌 골목길
- 04 북촌 한옥마을 길
- 05 장수마을과 창신동 골목길
- 06 세종대로
- 07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
- 08 미술관 가는 길
- 09 명동길
- 10 북창동 골목길
- 11 대학로
- 12 남산 산책길

제 1 화

낙산이화마을길

낙산 성곽 아래,
시간을 품어 안은 오래된 마을을 걷다

낙산 이화마을 파노라마 — 성곽 아래 어깨를 맞댄 집들

낙산 구간의 한양도성 성벽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자리 잡은 이화마을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이 품은 보석 같은 동네들이다. 경사 높은 산자락을 따라 아기자기한 집들이 웅기종기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곳은, 고층 빌딩이 치솟은 현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옛 산동네 특유의 따스한 정취를 물씬 풍긴다. 동대문 상공에서 이 지역을 조감해 본다면 성벽 왼쪽으로는 이화동과 충신동이, 오른쪽으로는 창신동과 송인동 지역이 한 눈에 들어온다. 조선시대의 지도를 펴놓고 따져보면 이화·충신동은 사대문 안 성곽 내부에, 창신·송인동은 성곽 바깥에 형성되었던 마을인 셈이다. 성 안과 밖이라는 역사적 경계가 오늘날까지 살아 숨 쉬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지금은 세종대로에 면한 빌딩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로 이화사거리에 40년 넘게 터를 잡고 있었다. 바쁜 업무 중 머리를 식히기 위해 15층 사무실 옥상에 오르곤 했는데, 그곳은 나만의 숨은 전망대였다. 눈 아래로는 이화동의 복잡하고 실타래 같은 이면도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였고, 시선을 조금만 높이면 멀리

낙산 이화마을의 변함없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병풍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곤 했다. 과중한 업무나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그곳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조용한 평정심이 찾아오곤 했다.

만약 효율만을 전면에 내세운 도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전면 철거 후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재개발 방식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낙산 자락이 수백 년간 지켜온 이 오래된 풍경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의 속도는 조금 더딜지라도 낙산 자락의 마을이 '도시재생'이라는 보존과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간을 점진적이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는 비단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동네가 가진 기억과 서사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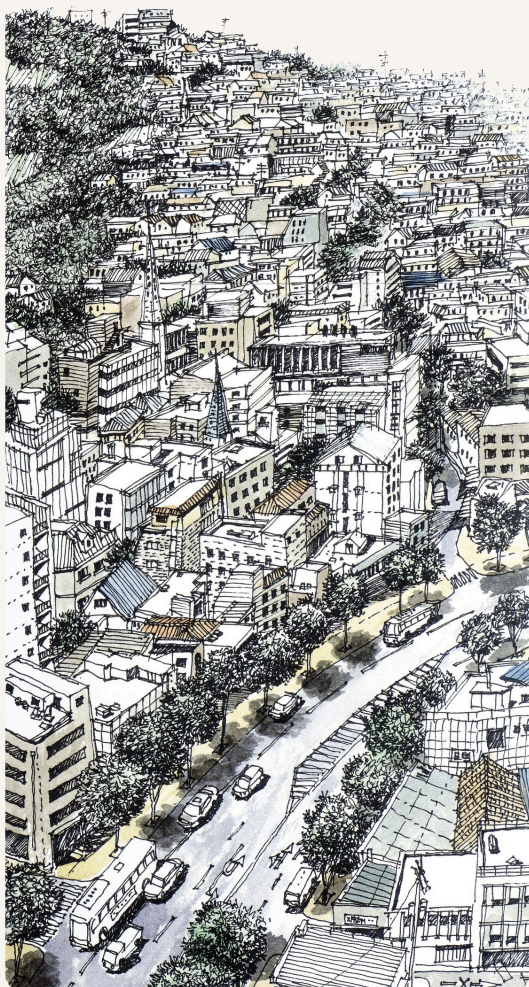
이화동 일대 조감 — 실타래 같은 이면도로와 그 너머의 마을

낙산공원을 향해 오르며 이화마을을 구석구석 답사하다 보면 시선이 닿는 발걸음마다 따뜻한 정겨움이 묻어난다. 이곳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나눔의 공동체 의식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일구어낸 더불어 사는 지혜가 오롯이 남아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사를 따라 모여 앉은 소박하고 나지막한 집들에서는 삶의 고단함과 애잔함이 동시에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정제되지 않은 삶의 생동감이 살아있다.

특히 세월의 때가 묻은 가파른 계단과 골목길은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유년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아련하게 소환하곤 한다. 녹슨 대문과 오래된 선홍통, 가스배관 같은 낡은 요소들조차 세월의 결, 주민들의 삶의 온기, 불완전함의 미학이 한데 어우러진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걸어난 시간을 솔직하게 증명하는 독보적이고 생생한 아카이빙의 현장이다. 빈티지 감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최근에는 서울의 밤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낙산에서 전문 해설사의 세심한 설명을 들으며 산책하는 '낙산, 이화마을 야행'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덕분에 선선한 저녁 시간을 활용해 역사와 야경을 동시에 즐기는 이색적인 답사도 가능해졌다. 초고층 빌딩이 뻗뻗한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이토록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기까지 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정겨운 풍경을 나만의 스케치북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은 유혹이 생기곤 한다.

이미 이곳은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강북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나 단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를 넘어, 앞으로도 이 따스한 마을의 풍경이 울곧게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빠르게 변해가는 차가운 도시 속에서, 서울의 깊은 역사와 소박한 서민들의 삶을 변함없이 담아내는 정겨운 고향 같은 동네로 오랫동안 남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충신동 일대 조감
— 성곽 밖으로 뻗은 실타래 같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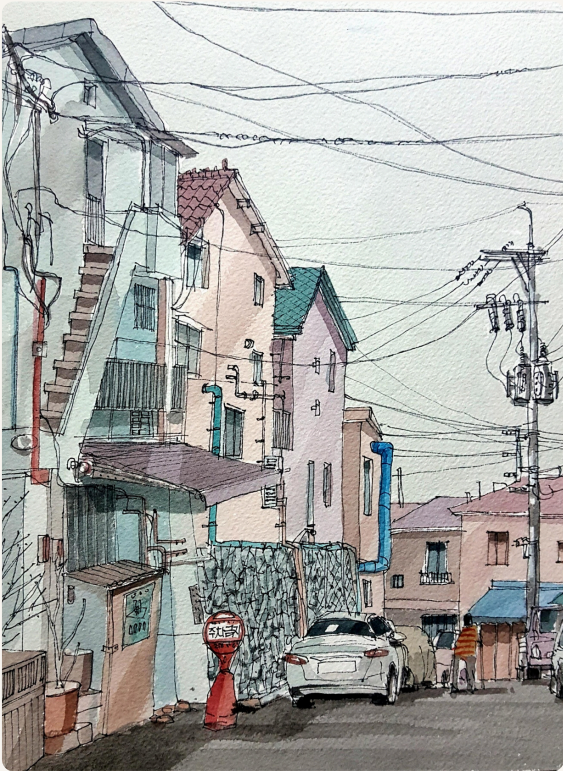
골목의 선홍통과 가스배관이 만든 세월의 결



낙산 자락에 모여 앉은 나지막한 집들



골목 어귀의 오후



가파른 골목을 따라 오르는 집들



담장 너머로 번지는 저녁 하늘



필자소개

임진우 건축가 · 정림건축 前 대표이사

정림건축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봉원교회, 이대서울병원, 한국야쿠르트 사옥 등을 설계했다. 건축작업 외에도 화가로 펜수채화 개인전을 열고 감성 에세이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범죄예방 MAGAZINE ●

현장경찰 LIVE

원고 모집

다양한 현장 사례와
현장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폴메일 '지역경찰역량강화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경찰 'LIVE' 소식지 제작 관련 문의

경찰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 | TEL. 02-3150-2401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